



東國大同窓會報

발행인 : 박대신 | 편집인 : 이계홍 | 03149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12, 백상빌딩 302호 (재)동국장학회 | T. 02) 733-0303 F. 02) 733-0306 | 인쇄 : (주)한우리SJM

2023년 (불기 2567년) 2월 6일 (월) <http://dongguk.or.kr> 제262호

모교 제20대 총장 윤재웅 교수 선임

3월 1일부터 새 임기 시작



모교 새 총장에 윤재웅 (국어국문81) 다르마칼리지 학장이 선임됐다. 1월5일 모교 로터스홀에서 열린 제347회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윤재웅 교수의 신임총장 선임을 결정

했다. 임기는 2027년 2월 28일까지 4년이다.

윤 신임 총장은 1981년 모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해 1987년과 1996년 동 대학원에서 각각 국어국문학과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2003년도부터 모교 국어교육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전략홍보실장, 사범대학장, 교육대학원장, 다르마칼리지 학장 등 학내 보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1979년 만해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열린 백일장에서 고등학생 신분으로 장원에 모교와 인연을 맺었다. 윤 신임총장은 모교의 보직을 두루 역임하여 학내 사정에 정통해 내실을 다질 실무형 총장이라는 평이다. 지난해엔 동국대를 빛낸 인물평전인 '동국의 빛' 시리즈를 기획해 출간하기도 했다.

윤 신임 총장은 "동국의 구성원들과 토론하고 논의해 세계에서 가장 특성화된 대학, 가장 경쟁력 있는 대학의 모델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총동창회장 추대위원회 구성

후보자 등록 공고 및 선임 일정 확정하고 활동 개시



▲ 추대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능력있는 후보자 발탁을 결의한 후 단체사진을 촬영했다.

상임위원회서 추대위원 선임

본회 제30대 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추대위원회가 구성됐다. 신년회를 겸해 1월10일 개최된 2023년 첫 상임위원회의에서 '회장 및 감사 선임규정'에 따라 추대위원 구성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추대위원은 학번/학과, 직능, 지역 등 산하 단체의 대표성과 활동성을 고려해서 15명을 확정했다. 추대위원회는 회칙에 회장 및 감사 임기 만료 2개월 이전 상임위원회에서 추대위원을 선임하여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추대위원장에 라동영 고문 선임



추대위원들은 2월2일 총동창회 회의실에서 위촉장 수여식을 갖고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등 집행부를 구성한 후 1차 회의에서 △선임 일정 △공고 내용 등을 논의, 확정했다.

향후 일정은 ▲2월6일 후보자 등록 공고(홈페이지, 동창회보, 문자메시지, SNS 등) ▲2월20일~3월10일 후보자 등록 접수 ▲3월16일 후보자 자격심사 ▲3월20일 추대위원회 2차 회의(후보자 심사 및 선출) / 상임위원회 보고 ▲3월28일 정기이사회 보고 / 정기총회 의결 등이다.

추대위원장에 선임된 라동영 고문은 인사말을 통해 "인품과 경륜 뿐 아니라 모교와 총동창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갖춘 후보자를 발탁하도록 다함께 노력하자"며 추대위원들을 독려했다.

추대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

〈집행부〉 △위원장= 라동영(불교59) △부위원장=이경석(도공67) · 김애주(영문76)
〈위원〉 △김환배(연공68) △김진억(경영73) △허창식(영문75) △송일석(미술76) △공영대(화학78) △최대식(회계79) △이계문(산공80) △이인석(전자80) △윤미정(수교81) △김종필(행정82) △차승환(토목83) △조덕형(조경84)

회장 및 감사 후보자 등록 공고

본회 회칙 제10조(임원의 선임)에 의거, 제30대 총동창회장 및 감사 추대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과 같이 해당 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

- ◆ **후보자격** : 모교 학부 졸업자, 동창회 발전에 기여 및 동문사회에 신망을 받는 자, 본회 재정적 지원 가능 자
- ◆ **제출서류** : 입후보자 등록신청서(지정 양식), 이력서, 서약서(지정양식), 졸업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회보서), 비전제시(지정양식)
- ◆ **접수기간** : 2023년 2월 20일(월) ~ 3월 10일 (금) 16:00까지
- ◆ **접 수 처** : 추대위원회 (Tel. 02-733-0303)

2023년 2월 6일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2023 정기 이사회 개최

본회 회칙 제17조(이사회 구성과 소집)에 의거, 다음과 같이 2023년도 정기 이사회를 개최 하오니 임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 **일 시** : 2023년 3월 28일 (화) 오후 6시30분
- ◆ **장 소** : 모교 중강당
- ◆ **회 비** : 없음
- ◆ **안 건** : 2022년 결산,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 회장 및 감사 후보자 보고

2023년 2월 6일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2023 정기 총회 개최

본회 회칙 제15조(총회의 구성과 소집) 및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2023년도 정기 총회를 개최합니다.

- ◆ **일 시** : 2023년 3월 28일 (화) 오후 7시
- ◆ **장 소** : 모교 중강당
- ◆ **회 비** : 없음
- ◆ **안 건** : 2022년 결산,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 회장 및 감사 후보자 선출, 기타

2023년 2월 6일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2022 동국인의 밤’ 달라진 동국 위상에 자부심 넘쳤다

총동창회 추진성과와 활동방향 공유하며 새로운 도약 다짐

‘2022 동국인의 밤’ 행사가 12월 8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성황리에 펼쳐졌다. 코로나로 3년 만에 열린 행사에는 70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원용선(영문59) 전순표(농학53) 송석환(농경64) 전영화(경행65) 등 역대 총동창회장을 비롯해 4.19혁명 동지회 원로부터 70·80학번대를 중심으로 90·00학번대에 이르기까지 전국 각지에서 참석해 자리가 빛났다.

박대신 총동창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제는 우리가 역사라는 자긍심과 책임의식을 함께 공유하면서 동국인이 자랑스러운 총동창회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학교법인 이사장 성우스님은 축사에서 “국내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모교가 이룬 성과는 모교 발전을 바라며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35만 동문들의 자비로운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윤성이 총장은 “우리는 하나다, 우리가 역사다” 구호제창을 유도하고 “과거 모교가 3대 사학으로 자리했던 역사를 재창조하기 위해 3대 사학 진입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며 모교를 위한 사랑과 지원을 당부했다.



식전행사는 문봉선(교대원91) 시인이 서정주 시인의 시 ‘우리 고향 중의 고향이여’를 낭송하며 서막을 열었고 이어지는 동국동문합창단의 ‘푸르른 날’ 합창으로 격조있는 무대를 선보였다. KBS 아나운서 한상권(경영89) 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순서는 삼귀의례, 내빈소개에 이어 전국 지부지회 회장단이 단상으로 올라와 인사했다. 박진호(경영65) 부산지부 회장은 대표로 “동국이란 두 글자 앞에서 지역 동문회 회장들은 모교를 위해 끝없이 정진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비전 액션플랜 추진성과를 공유하는 ‘이제는 우리가 역사다’ 영상시청에 이어 하이라이트인 자랑스러운 동국인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공로상은 △정환민(농학65)

前 총동창회 사무총장 △홍종표(행대원94) 동행라이온스 회장 △성재용(사과대95) 前 와이즈컴퍼스 처장 △이종호(무역84) 대구경북지부 사무국장 △김동식(체교70) 강릉지회 회장 △김희수(사대원13) 사대원총동문회 총무국장 △윤병관(화공82) 82학번동기회 前 회장 △이호중(행정85) 동국7080(백상고시회) 등 동문들이 수상했다.

여자총동창회장 김애주(영문76) 대외협력처장의 건배 제의로 만찬이 진행되는 동안 대형화면을 통해 행운권 추첨결과를 표시해 많은 경품들이 당첨자들에게 빠르게 전달됐다.

제3부 문화공연은 코미디언 엄영수(APP과정) 동문의 사회로 뮤지컬 가수 김봄, 동문 가수 박일남, 준경 가수 윤승희 등의 공연이 펼쳐져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700여명의 많은 동문들이 참석한 행사의 진행은 매끄러웠다. 테이블별 사전 예약을 통해 단위 동창회별로 좌석을 배치함으로써 사전에 혼잡을 최소화했다. 관행적인 의식행사는 간소화하고 행사의 본질을 부각시켜 참석자 모두가 주인공이 되도록 진행했다.

또, 처음으로 유튜브 생중계를 실시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동문들을 배려한 결과, 조회수가 1,000회를 넘는 뜨거운 관심을 확인했다.

2022년 자랑스러운 동국인상 시상 … 대상에 홍파스님

대상 | 홍파스님



홍파스님(불교63)은 (재)동국장학회 이사장으로 후학들을 위한 장학사업과 사)만해사상실천연합 이사장을 맡아 만해선양사업에도 앞장서면서 대한불교관음종 제9세 종정으로 추대되어 동국인의 위상을 높였다. 2018년 자랑스러운 동국인상 문화부문 수상자로 선정돼 수상했지만 이후에도 꾸준한 총동창회 활동으로 공적을 인정받아 2022년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사회부문 | 지성호



지성호(법학09) 동문은 북한 꽃제비 출신의 탈북자로 21대 총선을 통해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국회의원(국민의힘)이다. 2009년 모교에 입학한 후 2010년 북한인권단체 NAUH를 설립해 장애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북한 주민 수백명을 구출해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전 세계를 돌면서 인권운동을 전개하는 등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알리는 공적으로 선정됐다.

문화예술부문 | 문정희



문정희(국문66) 동문은 1969년 등단해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창작활동을 해오면서 5종의 시집과 다수의 장시집, 시극집, 산문집, 논문, 편저 등이 있으며, 영어를 비롯한 11개국의 언어로 번역된 14종의 저서가 있는 대표적인 문인으로 수상경력 또한 화려하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한글박물관 법인 출범부터 이사로 활동하다가 2022년 관장에 임명됐다.

봉사부문 | 해운스님



해운스님(불교11)은 대한불교서명종 원법사 주지로 2008년부터 원법사장학회를 결성해 포항지역 초·중·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후원하면서 470여명에게 3억여원의 장학활동을 펼쳐왔다. 와이즈컴퍼스와 서울컴퍼스에도 꾸준히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는 태풍과 코로나 피해를 입은 이웃을 위해 쌀과 성금을 기탁하는 등 자비행으로 불교계의 귀감이 되고 있다.

학술부문 | 김현석



김현석(전자97) 동문은 모교 전자전기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제논문 191건을 게재하며 최근 5년간 성과평가 상위 10% 이내에 매년 들어 선정됐다. 학술부문 후보자는 2020년 상벌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마련한 연구논문, 연구비 수주, 성과평가 등 피추천 자격 요건에 따라 모교에서 인문분야 1명, 이공분야 1명을 추천받아 심의해 선정한다.

단체부문 | 대구경북지부



소통공간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문화를 공유하는 총동창회 목표와 추진과제에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동문들을 견인함으로써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총동창회 행사와 동국장학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역에서의 다양한 활동 뿐 아니라 총동창회 발전을 위해서도 모범이 되고 있다.

대학평가 2년 연속 9위 ... TOP 10

학생교육, 교수연구, 평판도 등에서 높은 순위



2022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모교가 2년 연속 역대 최고 순위인 9위를 기록했다.

모교는 ▲학생교육 부문 4위(이전 5위) ▲교수연구 14위(이전 12위) ▲평판도 10위(이전 13위) ▲교육여건 29위(이전 26위) 등 여러 분야에서 높은 순위를 보이며 2년 연속 9위를 기록해 톱10 대학으로 기반을 다졌다.

평가영역별로 학생교육 부문에서 80점 만점에 57.010점을 획득해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모교는 특히 창업지원 분야의 강점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현장실습 참여학생 비율 3위(이전 5위) ▲중도포기율 5위(이전 8위) ▲외국학생 중도포기율 3위(이전 6위)를 기록했다.

학생교육 부문은 취업이나 창업의 양과 질, 현장실습이나 창업교육과 같은 사회 진출을 위한 대학의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다.

가장 높은 배점인 연구부문에서는 ▲인문사회 교수당 국내 논문 9위(이전 13위) ▲인문사회 저역서 발간 13위(이전 27위) 등 인문계열 연구 성과에서 크게 약진하며 교수연구 부문에서 14위에 올랐다.

▲기업 신입사원으로 뽑고 싶은 대학 11위(이전 15위) ▲학부모 진학 선호대학 10위(이전 13위)를 차지해 대내·외 평가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평판도에서 역대 최고 성적 10위를 기록했다.

정시모집 서울 5.2대 1, WISE 4.83대 1

모교 2023년 정시모집 원서접수 최종 경쟁률이 서울 5.2:1과 WISE 4.83:1로 마감됐다. 서울은 1277명 모집에 6646명이 지원했다.

가군 일반전형은 520명 모집에 2840명이 지원해 5.46: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연극학부(47.75:1)의 뒤를 이어 ▲역사교육과(6.42:1) ▲생명과학과(6.38:1) ▲문화재학과(6:1) 순으로 경쟁률이 높았다. 나군 일반전형은 606명 모집에 2913명이 지원해 4.81:1의 경쟁률

을 보였으며 ▲AI소프트웨어융합학부(인문)가 8.25:1로 가장 높았고 ▲약학과(8.08:1) ▲사회학전공(7.67:1) ▲철학과(7.4:1) 등이 뒤를 이었다.

WISE캠은 ▲한의예과(유형2)가 55: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의예과는 27.7:1로 뒤따랐으며 지역인재전형에선 ▲한의예과 22.5:1 ▲의예과 21:1로 나타났다. 또 수능전형으로 ▲안전보건 8.3:1 ▲간호학과 8.2:1 ▲스포츠의학 7.6:1 ▲경영학과 6.8:1을 기록했다.

함께하는 동국 ... 기부자 초청 감사의 밤



▲ 윤성이 총장은 국내 톱5와 세계 톱100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모교는 11월15일 엠배서더 풀만 호텔에서 '기부자 초청 감사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기부자들을 초청한 이날 행사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건학위원장 돈관스님, 윤성이 총장, 박대신 총동창회장, 송석구 前 동국대 총장, 김진문 신성약품 회장, 최진식 SIMPAC 회장 등 400여 명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KBS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이정민(광고99) 동문의 사회로 캘리그래피 퍼포먼

스 공연, 윤성이 총장 성과 공유 발표, 감사 영상 상영, 공감 토크, 감사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감사공연은 동국동문합창단, 연극학부 학생들의 뮤지컬 갈라쇼, 모교 한국음악과

박애리 교수와 팝핀현준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이 진행됐다.

한편, WISE캠퍼스(총장 이영경)는 12월15일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2022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기부자 감사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을 비롯해 WISE캠퍼스 기부자인 스님·불자·동문·기업체·장학회 임원 등 120여명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학교법인 이사회서 후임 이사 선임

신임 이사에 최진식, 종호스님



최진식 (무역77)



종호스님 (선학81)

학교법인 동국대학교는 11월22일 346회 이사회를 열고 2023년 1월24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은기 이사 후임으로 최진식(무역77, 심팩 회장) 동문을, 2023년 2

월28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성우스님 후임으로 종호스님(선학81)을 신임이사로 선임했다. 이사 임기는 교육부 승인일을 기해 4년이다.

또 이사회에서는 학과·대학의 신설과 폐지 및 학생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서울캠퍼스에 첨단분야 반도체 특성화 학과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이과대학 소속 물리반도체과학부 물리학 23명 정원으로, AI융합대학 내 시스템반도체학부로 40명 편제 변경하는 내용이다.

찾아가는 동창회 ... 호남지역 방문



▲ 광주전남지부 동문들은 동국 화이팅! 구호를 외치며 단합을 다짐했다.

총동창회는 11월7일 호남의 빛고을 광주전남지부를 찾아 격려했다.

박대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 동

창회 활성화를 위해 중앙에서 적극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선배 수석부회장은 "중앙과 지역동창회가 서로 교류하며 소통하다 보면 동창회 발전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천석(정외76)

광주전남지부회장은 "총동창회와 함께 발전하는 광주지부가 되도록 분발하겠다"고 화답했다.



▲ 박대신 총동창회장은 전북전주지부 활성화를 당부했다.

11월8일에는 전북전주지부를 방문하여 총동창회에서 준비한 '동창회 100년

동창회와 협력하여 전북전주지부를 활기찬 동창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 시간', '총동창회 비전', '이제는 우리가 역사다'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장세균(철학67) 전북전주지부 회장은 "중앙에서 지역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방문한 것은 처음인 것 같다"며 "총

부산 동창회, 신년 동국인의 밤 개최

부산 동창회(회장 박진호)는 2월24일 오후6시 부산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신년 동국인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이육태(불교80) 행사 준비위원장은 "모교의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부산지역 동문들의 단합을 도모하고 역량을 모으고자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부는 행사를 계기로 활동성 있

는 동문들과 부산지역 1만명 동문 가입을 목표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총동창회는 부산지부에서 신년 동국인의 밤 행사를 개최함에 따라 전국 지부(회) 회장단을 소집해 신년 교례회를 겸해 2023년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총동창회 활동 홍보와 함께 조직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부산 동창회, 신년 동국인의 밤 -

● 일 시 : 2023년 2월 24일 (금) 오후 6시

● 장 소 : 부산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

※ 전국 지부(회) 회장단 신년 교례회 행사는 오후 5시에 별도로 실시합니다.

내 취향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로 선택하는 **앰배서더 호텔 통합 멤버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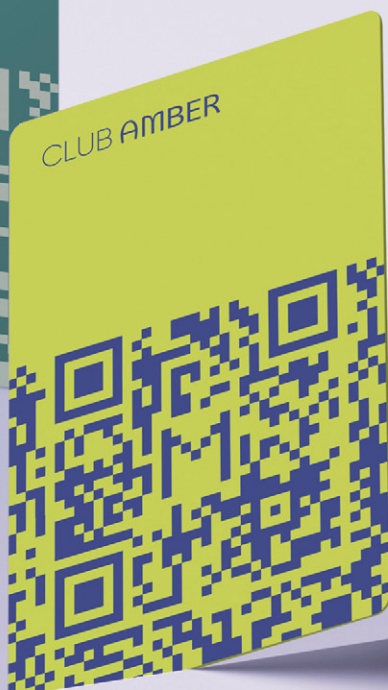
CLUB AMBER



비즈니스와 레저를 동시에
AMBASSADOR B



여유로운 휴식을 추구하는
AMBASSADOR A



가치있는 소비를 추구하는
AMBASSADOR M

가입 문의 클럽 앰버 회원 관리팀 T. 02.2278.4100 (월-금 09:30 - 18:00)



클럽앰버 혜택보기



AMBASSADOR

총동창회 미래 비전 100년 선포 · 10년만에 동국인명록 펴낸 성과

“동문 화합과 모교 발전 기여가 총동창회 역할이죠”



박대신 총동창회장 이임 인터뷰

4년의 임기를 마치고 이임하는 박대신 회장은 “재임 기간 코로나 19로 인한 소통 단절 등 애로가 있었지만, 오히려 내실을 다진 기간이었다”고 회고 했다.

대체로 넥타이를 맨 단정한 정장 차림. 한 점 흐트러짐 없이 곱게 빔은 머릿결. 그리고 건강한 체격이 듬직한 인상을 준다. 제28대와 29대 총동창회장직을 수행해온 박대신(69 국문학과) 총동창회장의 모습이다. 일정한 톤의 잔잔한 목소리가 성실한 타입임을 말해준다.

“재임 기간은 코로나19의 시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 업무가 흐트러진 경우도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지부지회 회장들과 만해마을에서 총동창회 미래 비전 100년 선포식을 갖고 변화와 발전을 위한 역사창조의 디딤돌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폭우 속에서도 골프대회 완주, Wise campus(경주 캠퍼스) 동문과의 유대 강화 등의 일이 기억납니다. 모교와 종단과의 관계 또한 과거 어느 때보다 돈독하게 결속한 점도 업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달성해온 일들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무엇보다 WISE 캠퍼스 얘기를 안할 수 없군요. 지난해 경주시장을 만나서 경주병원 거액의 MRI 장비 지원을 약속받았던 것이죠. 또 경주캠퍼스 앞 냇가를 복개해 학생들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주선했고, 캠퍼스 인근 하숙촌 원룸의 임대료와 하숙비를 10만원 가량 싸게 숙할 수 있도록 교섭해 이뤄냈습니다.”

경주시 유일의 대학 캠퍼스를 살린다는 취지로 나서니 경주시도 적극 지원에 나섰다. 박 회장은 모교와 법인과 총동창회가 여느때없이 단합하고 결속한 점도 성과로 들었다.

“모교, 법인, 총동창회가 새로 발족한 제2건학위원회와 함께 모교 발전 방안을 마련했지요. 그리고 그동안 부산지부 활동이 부진했는데, 작은 차이들이 원만히 해결돼 정상화되었다는 점입니다. 금명간 신임회장단이 들어서면 대한민국 제2도시의 동문회답게 크게 활성화되리라 확신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총동창회관 건립이 지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모교 로터스관 건립과 함께 연동이 되는 사업이어서 물리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아쉽습니다. 모교에 총동창회관 건립기금 25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박 회장은 총동창회 인명록을 펴낸 것도 성과였다고 내세웠다.

“사무국에서 동문들의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동문 숫자가 35만명이 되더군요. 기존 30만명이라고 알려졌는데, 확인 결과 5만명이 늘어났습니다. 117년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니 동문 수가 많은 것인데, 이중 90%의 동문을 인명록에 수록했습니다. 이런 인적 자산은 모교의 큰 자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문 명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애로점도 적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명단 수집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명단 확인 과정에서 오해를 사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요즘 워낙 신분 노출로 인한 범죄들이 횡행하다보니 신고하는 일이 있었지요. 하지만 숨은 동문을 찾아내고, 해외에 사는 동문들까지 발굴이 되니 보람이 컸습니다.”

찾아가는 동창회를 통해 동문 역량을 결집한 활동은 성과이자 보람이었다고 말했다.

“취임하고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에 있는 동창회를 일일이 찾아 다니면서 동문들과 소통했습니다. 윤성이 총장, 김애주 대외협력처장과 함께 방문하기도 했지요. 총동창회장과 총장이 함께 찾아가니 동문들의 반응은 정말 뜨거웠어요.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다며 모두 감격해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찾아가는 동창회 활동으로 동문들과 꾸준히 소통한 노력은 동국가족 골프대회와 동국인의 밤 행사를 통해 빛이 났다.

박 회장은 그동안 경영해온 주식회사 ‘동우’ 등 3개 회사를 동생에게 맡기고, 총동창회 일에만 전념해왔다. 사업적 타격이 있었지만, 총동창회 일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고 평가하고 매달렸다. 이는 주어진 일을 적당히 때울 수 없다는 평소 완벽한 성격도 크게 작용했다.

박 회장은 전통의 국문과 출신답게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 작가들이 포진해있는 동국문학인회에 아낌없는 지원도 했다. 전통 명문 학과는 살려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이에 따라 국문학과, 경찰행정학과, 연극영화과, 불교학과 등 전통과 특색을 갖춘 학과를 모교의 대표 브랜드로 살려나가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임을 앞두고 미진했던 일, 후회스런 일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연택 전 회장의 일이지요. 상호 불신 속에 갈등과 대립이 있었지만 이것을 털고 나가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분열하면 동문 구성원간의 단결력이 무너지고, 각 대학 출신간의 치열한 경쟁이 현실인 마당에 그만큼 에너지가 방출되는 아픔이 있습니다. 세세하게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벌써 10년 전의 일들이니 갈등의 소재들을 모두 ‘망각의 강’에 버리고, 새롭게 총동창회가 거듭날 수 있도록 정기총회에서 해원 의식을 갖고자 합니다. 새로운 총동창회장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제 손에서 이 문제를 마무리하고 떠나고자 합니다”

따라서 그는 3월말 갖는 정기총회에서 이의 안건을 상정해 깨끗이 해결하겠다고 언명했다. 그러면서 이임 후가 더 바쁠 것 같다고도 했다.

“불교계를 위해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모교 지원과 불교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모교 일산병원에 불교요양병원을 건립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떠나는 아쉬움이 있지만, 새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의욕이 생긴다는 박 회장은 동국가족이기도 하다. 교사 출신인 아내 이애종(69국어교육과) 여사와 두 딸 중 맏딸 혜상(96국어교육과)씨가 동국가족이고 불교가족이다.

이계홍(국문65, 동창회보 편집위원장)

※ 인터뷰全文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3년만에 다시 활기 찾은 동창회

여자총동창회

윤미정 동문, 신임 회장 취임



여자총동창회는 12월19일 모교 상록원에서 송년의 밤 행사를 갖고 신임회장에 윤미정(수교81, YK에듀케이션 대표이사) 동문이 취임했다. 박대신 총동창회장은 김애주(영문76) 이임회장에 공로상을 수여하며 노고를 치하했다.

윤 신임회장은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보려고 한다”며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불교대학원총동창회

동불최고공로대상 수여



불교대학원총동창회(회장 해담 스님)는 12월6일 앰버서더 서울 풀만호텔에서 송년법회를 봉행하고 정인악 동문(1기, 초대 총동창회장)에게 동불최고공로대상을 수여했다. 유의태 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법

회에는 모교 윤성이 총장, 황순일 불교대학원장, 권기종·서윤길·조용길 명예교수, 박대신 총동창회장, 전영화 前 회장을 비롯해 김성호·문황진·진우 스님 등 불교대학원 前 동창회장들과 일반 동문 등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언론정보대학원

차기 회장에 이웅현 동문 추대



언론정보대학원 총동문회(회장 손정희)는 11월16일 프레스센터에서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재용 동문의 사회로 시작된 행사에서 차기회장을 수락한 이웅현(현 퍼시픽북스 회장) 동문에게 추대패를

전달하고 하종대 동문(현 한국정책방송원장)과 박종진 동문(현 주식회사 IHQ 총괄사장)에게 학교 발전과 총동문회 및 언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22년 동국언론인상’을 수여했다. 차기 회장을 수락한 이웅현 동문은 언론정보대학원 발전기금으로 1천만 원을 기탁했다.

불교문화대학원총동문회

송년 모임서 발전기금 전달



불교문화대학원총동문회(회장 이재동)는 12월6일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교수, 재학생, 동문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국인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불교문화대학원 발전에 이바지한 동문

들에 대한 공로패 전달, 불교문화발전기금 전달, 경품행사 등 동문들간 친목과 화합을 다졌다. 이날 행사에서 이재동 회장이 1천만원, 불교문화대학원 총동문회 일동 1천만원, 수석부회장 중하스님 5백만원 등 총 2천5백만원을 발전기금으로 WISE캠퍼스 총장에게 전달했다.

ROTC총동문회

30대 회장에 25기 차승환 동문



ROTC총동문회는 11월23일 디노체컨벤션에서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갖고 윤재민(사학81) 회장이 이임하고 차승환(토목83) 회장이 취임했다.

차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울트라장학사업의 내실

화와 후배기수들이 활동 주역으로 참여하는 총동문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불교학과동문회

정기총회 열고 이학송 신임회장 등 선출



불교학과동문회(회장 박순, 64학번)는 12월12일 인사동 인사아트프라자 르프랑에서 7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2022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를 갖고 예결산 심의와 함께 제10대 회장에 이학송(78학번),

신임감사에 박영동(79학번)·김영국(80학번) 동문을 선출했다.

82학번동기회

입학 40주년 자축 송년회



82학번 동기회(회장 이상민)는 11월25일 앰버서더 풀만호텔에서 입학 40주년과 동창회 결성 10주년을 자축하는 송년모임을 성대하게 열었다. 10년동안 다양한 소모임 활동을 영상으로 추억하고 초청가수 공연과 레크리에이션 및 장기자랑을 통해 82학번만의 열정이 돋보이는 행사를 펼쳤다.

크리에이션 및 장기자랑을 통해 82학번만의 열정이 돋보이는 행사를 펼쳤다.

대구경북지부

자랑스러운 동국인상 수상 자축



대구경북지부(회장 손기범)는 12월28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송년모임을 갖고 자랑스러운 동국인상 단체부문 수상을 자축했다.

손기범 회장은 ‘찾아가는 동창회’ 활동으로 대구경북지부를 방문한 박대신 총동

창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공로상 수상자인 이종호(무역84) 사무국장은 참석자들을 하나하나 거명하면서 참여하는 송년회 분위기를 이끌었다.

송구영신 ... 새해에는 행복한 만남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 83학번동기회(회장 송인모)는 11월19일 충무로 스테이락호텔에서 윤성이 총장과 함께 송년모임을 가졌다.



▲ 건축학과동문회(회장 김승욱)는 12월1일 PJ호텔에서 송년모임을 갖고 단합을 도모했다.



▲ 경영대학원총동문회(회장 김진문)는 12월15일 모교 상록원에서 송년회를 갖고 케익 절단식으로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 동국동문합창단 강석우(연영77) 단장은 12월20일 모교 상록원에서 열린 송년모임에서 단원들의 활동을 치하하고 격려했다.



▲ 박대신 총동창회장은 12월29일 한일옥에서 열린 4.19혁명동지회(회장 라동영) 송년회에 참석해 격려했다.



▲ 행정대학원총동문회(회장 법타스님)는 1월17일 신년 하례식을 갖고 단합과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동문 배우들이 참여한 연극 <갈매기> 관람

연극 관람 후 출연 동문 배우들 꽃다발 증정하며 격려

총동창회는 여자총동창회 동문들과 함께 연극 <갈매기>를 단체 관람하고 동문 배우들을 격려했다.

연극 <갈매기>는 22년 12월 21일부터 23년 2월 5일까지 유니버설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했다.

러시아를 대표하는 극작가 안톤 체홉의 희곡 <갈매기>는 유명한 배우인 어머니 '아르카지나'의 그

늘에서 벗어나 작가로 성공하길 바라는 트레플레프와 명성 있는 배우가 되길 꿈꾸는 젊은 배우지망생 니나의 비극적 사랑을 그린 작품으로 이경실(84학번), 이향나(88학번), 소유진(00학번), 김수로(09학번), 이윤건(94학번), 진지희(18학번) 등 동문이 출연했다.



▲ 박대신 총동창회장은 여자총동창회(회장 윤미정) 동문들과 함께 동문 배우들이 다수 출연한 연극을 관람하고 격려했다.



이경실 (84학번)



이향나 (88학번)



소유진 (00학번)



김수로 (09학번)



이윤건 (94학번)



진지희 (18학번)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전국 제1의
불교대학

월1만원의
저렴한 학비

경전중심의
알찬내용



23년 3월 7일 화요일 오전반 11:00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 팔공산, 영천, 청도, 감포 해변절

유튜브 불교대학 비유디(자매채널)

13만 구독자가 시청하는 생활법문
한국불교대학 or 유튜브불교대학 or 우학스님 검색

불교의 모든 것! 생활법문, 신행상담

▶ 수행 - 금강경 독송, 관음정근, 대다라니

▶ 멤버십을 통한 체계적 불교공부 (월 2,990원/교재 무료 제공)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대구큰절 053)474-8228 감포도량 우일선원 무문관 & B.U.D 세계명상센터 054)753-8228
경산도량 053)816-8228 칠곡도량 053)313-8228 구미도량 054)443-8228
포항도량 054)727-8228 서울도량 02) 963-8228 팔공산도량 053)985-8229
영천도량 054)333-8228 청도도량 054)373-8229 감포 해변절 054)745-9229

송석환 25대 회장, 2000만불 수출탑 수상



송석환(농림경제 64) 동진기업 회장은 2022년 고객사와의 신뢰로 물류대란을 극복하고 2000만불 수출탑을 수상했다. 1976년 국내에서는 최초로 합지 시트를 개발하여 미국에 식품용 트레이 등을 수출한 이래로 2004년에 500만불, 2012년에 1000만불, 2022년 제59회 무역의 날에는 20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하는 영예를 달성했다.

타 업종보다 제품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제품들로 매일 7~8대의 컨테이너로 수출한 결과이기 때문에 더욱 값진 실적으로 평가된다. 송 회장은 “2021년 글로벌 물류 대란 당시 캐나다와 미국으로 수출하는 운송비가 급등하여 수출을 하면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였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고객사와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해상운송은 물론 고비용의 항공운송을 마다하지 않고 수출을 강행하여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인정 아시아산악연맹 회장, 명예박사 학위



이인정(상학65) 아시아산악연맹회장 한국체육대에서 체육학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인정 회장은 한국산악계의 대부로 불려진다.

그는 1980년 마나슬루 한국 초등을 이끌었고,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2년간 대한산악연맹 회장을 역임했다. 스포츠클라이밍의 전국체전 스포츠 종목 정착을 성공시킨데 이어, 아시아산악연맹 발전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세계산악연맹으로부터 한국인 최초 명예 회원으로 선정되며 한국 산악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대한체육회의 이사와 남북체육교류위원회 위원장, 2018년 자카르타아시안 게임 선수촌 총괄단장을 역임했고 대한체육회 정책자문위원, 2024년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대회 평화올림픽 홍보단 고문으로 체육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경찰청 인사

행안부 경찰국장 내정



강원경찰청 최초 치안감 승진자인 김희중(경행85) 경찰청 형사국장이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에 임명됐다.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울산경찰청장 취임



이호영(경행85) 동문이 12월30일 제29대 신임 울산경찰청장에 취임했다. 이 청장은 충남 서산 출신으로 2014년 충남 경찰청 세종청사경비대장, 2018년 경찰청 자치경찰법제팀장, 2022년 6월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을 역임하다 울산경찰청장에 취임했다.

경무관 승진 (2023. 1. 3)

△김호승(경행87) = 국방대학원 △모상묘(경행 85) = 분당경찰서장

경무관 전보 (2023. 1. 19)

△김병기(경행88) = 전라북도경찰청 자치경찰부장
△마경석(경행89) = 충청북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엄성규(경행90) = 전주완산경찰서장
△오상택(경행85) = 경기도북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이재영(대학원 경찰학박사) = 중앙경찰학교 교수부장

총경 승진 (2023. 1. 10)

△송혜영(경행88) △김현수(경행93) △박승훈(경행94) △전귀성(경행98)
△이상엽(법학88) △김기범(행정91) △심명섭 총경(대학원 경찰학박사)

임명 · 승진 · 선출

DB그룹 보험그룹장 내정



김정남(행정72) DB손해보험 대표이사 부회장이 역대급 실적을 이끈 전문경영인으로서 성과를 인정받아 DB그룹 보험그룹장에 내정됐다. 김 보험그룹장은 1979년 동부고속으로 입사해 1984년 DB손보로 자리를 옮겼으며 DB손보 상무, 부사장, 대표이사에 올랐다.

인천항만공사 건설부문 부사장



정근영(행정76) 전 현대건설 인천지사장이 인천항만공사 7대 건설부문 부사장에 임명됐다. 정 신임 건설부문 부사장은 인천 출신으로 인천항만공사는 정 부사장이 경험과 식견을 두루 인정받고 있는 인물로 인천항 주요 인프라 건설 및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권투위원회 심판위원장 선임



최영식(국문81) 동문이 1월28일 홍천군 종합체육관에서 사단법인 한국권투위원회로부터 임명패를 받아 심판위원회 심판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금융산업공익재단 이사 선임



이계문(산공81) 모교 석좌교수가 11월2일 금융산업공익재단 이사로 선임됐다. 이 재단은 금융노조와 33개 금융기관이 2018년 10월 공동 설립한 국내 최초의 노사 공동 공익재단이다. 임기는 2년이다.

전자랜드 신임 대표이사



김찬수(전산82) 전자랜드 신규사업부문 부문장이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김 신임 대표는 1986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B2B 영업과 경영 전략 경험을 쌓았다. 이후 2010년 전자랜드로 자리를 옮겨 마케팅팀장, 신규사업부문장을 거쳤다.

월드투데이 회장 선임



김규식(사회84) 동문이 월드투데이 회장으로 선임됐다. 김 신임 회장은 경인일보 기자, 지역사회부장, 편집국부장, 북부권·동북부권취재본부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가천대학교에서 지방자치론, 저널리즘이

론 등을 강의하고 있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 학회장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 제20대 회장에 이상훈(경행84) 대전대 교수가 선출됐다. 이 회장은 한국 연구재단 등재지인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등을 발행하며 연구 활동을 주도하게 된다. 임기는 2년이다.

대한LPG협회 제7대 회장 취임



대한LPG협회 7대 회장으로 이호중(행정85) 동문이 11월1일 취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 이 신임회장은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공직생활을 시작해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연보전정책관, 낙동강 유역환경청장 등을 역임했다.

삼성생명 부사장



이완삼(경영87) 동문은 삼성생명 2023년 정기 임원인사를 통해 영업건설팀장상 상무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 신임 부사장은 1992년 삼성화재에 입사해 삼성화재 개인영업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상무, 영업건설팀장 상무 등을 역임했다.

전국언론사불자연합회장



전국언론사불자연합회 13대 회장에 남철우(농경89) 전 KBS 교향악단 사무국장이 취임했다. 전국언론사불자연합회는 국내 방송사와 신문 등 언론사에 종사하는 2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부임



신임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으로 유현석(경제90) 전 한국은행 파견 실장이 부임했다. 유 지원장은 1988년 한국은행에 입사해 여신금융검사국 팀장, 정보화전략국 부국장, 한국은행 파견 실장 등을 역임한 은행·비은행 검사 및 신용정보 분야의 전문가다.

하나은행 신임 부행장



김영일(경제91) 동문이 하나은행 임원 인사를 통해 12월26일 경영기획그룹장(부행장)으로 선임됐다. 김 신임 부행장은 1997년 하나은행에 입행한 후 ALM팀 차장, 하나금융지주 재무기획팀 차장, 하나은행 재무기획부 부장, 경영전략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제19회 대원상 출가 대상 및 특별상



대한불교진흥원은 제 19회 대원상 출가 부문 대상에 한국불교대학 대 관음사 회주인 우학스님(선학84)과 특별상에 중 앙승가대학교 불교학부 교수 자현스님(철학96)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우학스님은 1992년에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도량을 창건한 이래 30년간 대구·경북 지역 불자들의 체계적인 불교 교육과 수행, 실천 활동을 이끌면서 최근에는 유튜브불교대학을 개설해 ‘유튜브를 통한 정토구현’이라는 새로운 발원을 세워 정진하며 국내외 불자들의 수행과 불교 공부를 이끌고 있다. 또한 불교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상급 전액과 사비를 더해 장학기금 2,000만원을 모교에 전달했다.

자현 스님은 유튜브 채널을 적극 활용해 현대 포교의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누구나 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는 전법 활동에 앞장서왔다. 총 6개의 박사학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섬 없는 학문 연구와 집필 활동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전파하기 위해 콘텐츠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현재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월정사 교무국장, 사단법인 한국불교학회 법인이사,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아사리, 불교신문 논설위원 등을 맡고 있다.

수 상

부산시 자랑스런 건설인상 수상



문선배(경영15) 신화 종합건설 회장은 최근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건설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부산시로부터 ‘자랑스런 건설인상’을 받았다.

제54회 한국일보문학상



최은미(사학96) 동문의 소설집 <눈으로 만든 사람>(문학동네 펴냄)이 11월25일 ‘제54회 한국일보문학상’ 수상작으로 선정

됐다.

‘눈으로 만든 사람’은 여성-가족-사회를 둘러싼 첨예한 문제의식을 관습적 재현 대신 자신만의 폭발적이고 독창적인 서사로 완성시킨 소설집이다.

최 작가는 2008년 ‘현대문학 신인상’에 단편소설 ‘울고 간다’가 당선되어 등단했다. 소설집 <너무 아름다운 꿈>, <목련정전>, 중편소설 <제는 봄>, 장편소설 <아홉 번째 파도> 등을 펴냈다.

2023 신춘문에 당선자

- 김소진(문창19) : 필명 김사사
서울신문 2023 신춘문에 - 소설 : 체조합시다.
- 하가람(대학원17)
세계일보 2023 신춘문에 - 소설 : 수박
- 황사라(문예대)
전북일보 2023 신춘문에 - 시 : 활어

신 간

불멸의 성(性)



임해리(역사교육79) 동문이 인문학의 관점에서 성을 주제로 쓴 ‘불멸의 성(性)’을 펴냈다. 저자는 인문학의 관점에서 성은 휴머니즘이라고 단언한다. 성이 학문의 영역에서 성과학(Sexology)으로 자리한 것처럼 인문학으로 보는 성교육이 필요하며 모든 성은 동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범죄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현실 속에 인문 교양서로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노트미디어 / 1만9천5백원)

조선의 책



김진섭(사학81) 동문이 우리 문화와 역사를 주제로 오랫동안 강연과 글쓰기를 해오면서 개인의 일상에서 국가의 공적 업무, 야담(野談), 우스갯소리, 고금(古今)의 온갖 지식까지를 광범위하게 기록한 ‘조선의 책’을 역사 속 인문 콘텐츠 탐구를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완성했다.

(지성사 / 3만3천원)

북한학 개론



북한학 박사 김용현(정외85) 모교 행정대학원장이 책임 편저한 ‘북한학 박사가 쓴 북한학 개론’을 펴냈다. 김정은 체제 10년 동안 북한 사회는 많은 변화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었다. 이 책은 북한의 최근 상황을 각 분야 북한학 박사들이 진단하고, 여전히 ‘미지의 세계’인 북한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지침서다.

(동국대학교 출판부 / 2만원)

부적의 비밀



자현스님(철학86)이 『불화의 비밀』(2017), 『스님의 비밀』(2016)과 함께 기획된 ‘비밀 3부작’의 결정판으로 『부적의 비밀』을 펴냈다. 자현스님은 국내 유일무이한 6개 분야(동양철학, 철학, 미술사학, 역사교육, 국어교육, 미술학) 박사학위 보유자로, 무엇보다 문화 파급력의 차원에서 부적이라는 코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이 지금 왜 우리의 시대적 과제인지를 일깨워준다.

(모과나무 / 1만9천원)

도상경영



성곽길역사문화연구소 최철호(산공86) 소장의 경험을 각색한 작품으로 가상인물을 설정하여 대화 형식으로 이뤄지는 인문학 경영수업이다. 코로나로 경영 위기를 맞은 나대로 중소기업 대표는 우연히 참석한 강의에서 역사인문학자 최도성 소장을 만나게 된다.

생존을 위한 길을 모색하던 나 대표는 최 소장과의 한양도성을 걸으며 역사와 철학을 바탕으로 생생한 경영수업을 시작한다.

(아임스토리 / 1만6천원)

사진으로 읽는 근현대 한국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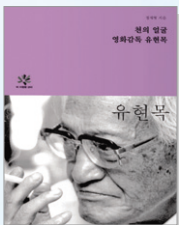
황순일 교수가 연구 책임을 맡아 펴낸 『사진으로 읽는 근현대 한국불교』는 불교학술원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2017년부터 5년간 진행해온 ‘한국의 근대불교문화 사진 아카이브 구축’ 프로젝트 결과이다.

(동국대학교출판부 / 3만7천원)

동국의 빛, 이 사람을 보라 ... 동국을 빛낸 인물 평전 시리즈 속간

천의 얼굴, 영화감독 유현목

- 정재형(연영80) 저



전위적 현대미학을 이 땅에 실현한 한국영화 미학의 개척자, 유현목은 천의 얼굴을 지닌 사나이였다. 영화를 하였으나 영화 밖의 세계와 교유했고, 마침내 세상을 얻었다. 스스로 굴복보다는 저항을, 안일보다는 고뇌를 선택했던 영화감독 유현목. 그래서 우리는 “유현목은 영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 국보 양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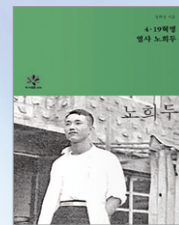
- 장영우(국문77) 저



조선고가연구, 여요전주 등 우리 고대가요의 어휘와 형식적 틀을 최초로 정리한, 한국 문학계의 보물같은 존재, 양주동 선생은 한번 보고 들으면 잊지 않는 천부적 재능을 불굴의 노력으로 더욱 빛낸 천재다. 엄청난 독서와 치밀한 분석력으로 고가古歌 연구를 단기간에 완성한 선생이야말로 우리가 존중해야 할 사표師表다.

4.19혁명 열사 노희두

- 정희성(국문79) 저



4월19일 동국대 시위대는 해일처럼 움직였다. 그 선두에 스물두살 법학도 노희두 열사가 있었다. 모교 법학과 3학년 노희두. 고향 부모님 등 집안 어른들이 거는 기대를 모르지 않았지만 1960년 전후 한국사회가 청년학도에게 요구하는 책무 또한 외면하지 않았다. 4월19일 오후, 시위대를 향해 경찰의 조준사격이 시작됐다.

동국대학교
출판문화원

구입안내 : 각 1권 12,000원 / 세트 10권 구입시 118,000원 (보관용 케이스 + 배송비 포함)
입금계좌 : 신한은행 140-013-149661 (예금주 : 주식회사 정진코퍼레이션)

주문전화 : 02.2264.4714

**삼진
어묵**
SINCE 1953

삼진어묵, 어묵의 문화를 만든다

피란민들의 영양식에서 끼니마다 식탁 위에 올라오는 국민 반찬으로, 그리고 간식의 영역까지. 삼진어묵은 과거에도, 현재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삼진어묵은 새로운 문화 개척을 통해 어묵 시장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삼진(三進)은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에 정진해서 미래로 나아가자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진 | 삼진어묵 부산역광장점



www.외동석재.nasoft.kr



세계명석 경주 남산석 불교조각의 명가

경상북도 석공예부문 최고장인 사대 22기 한 동 식

외동석재
SINCE 1972

경북 경주시 외동읍 산업로 2610-4 대표전화.(054)777-0404, 776-9500~3 FAX.(054)776-9504
웹하드 ID.wdston PW.7770404 무료전화. 080-855-9500 E-mail. od0404@hanmail.net

건강과 행복을
알려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범명사 회주
사단법인청소년교화연합회 총재
대한불교조계종군중특별교구장**



미광선일 (인도철학과 73학번)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 163-22 T. 032) 577-5108

www.ehsp.co.kr



**해 성 약 품 (주)
(주) 진 선 메 디 칼**

**첨단물류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의약품, 의료소모품 전문 유통업체**

대표이사 안 형 모
(통계학과 75년)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농소길 33-56
TEL : 043 - 216 - 2541 FAX : 043 - 216 - 2544

| 동국대학교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세계속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전통과 저력의 명문사학**



금 불 사 대원스님 (불문원 2015入)

한마음선원은
불법의 궁극적 목표인 한마음을 깨닫게 하는 도량으로서
모든 중생이 본래로부터 지니고 있는 불성을 밝혀
성불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23-26
www.bs.hanmaum.org

취감정평가법인
대 교
DAEGYO APPRAISAL CO., LTD.

대표이사 / 감정평가사
정 혁 민
(경찰행정학과 졸업)



www.daegyoapp.co.kr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4, B동 3층 310호 (문정동, 엠스테이트)
Tel. 02-6085-6001 / Fax. 02-6085-6002

Mobile. 010 . 4499 . 6466 · E-mail. jhm1592@naver.com

연안해상 유류운송업의 리더

진양1호 취항

열정으로 가득한 도전 에너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니다



(주)진양유조선

대표이사 회장 **황 경 한**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65-7번지
(대우증권빌딩 2층)

전화 : (052) 269-3071~2
팩스 : (052) 261-5556

70 · 80학번에서 70 · 80년생까지

사회 각계 활약하는 동문, 신년회 대거 참석



▲ 7080동창회는 신년회 및 회장 이취임식 행사를 갖고 활동력 있는 7080 동문들과 총동창회 중심 세대로 활동을 다짐했다.

7080동창회는 1월27일 모교 상록원에서 신년회와 함께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차연신(연영85), 황범순(행정91) 동문의 공동사회로 70 · 80을 대표하는 동문들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룬 가운데 이계문(산공80) 4대 회장에 이어 김종필(행정82) 5대 회장이 취임했다.

김종필 신임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7080동창회는 70 · 80학번에서 70 · 80년생(90 · 00학번)까지 확장해서 코로나로 인한 단절의 시간을 넘어 일상 회복 시대에 노장청 소통과 대화함을 만드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역할을 수행할 신임 집행부를 소개했다.

박대신 총동창회장은 이계문 이임회장과 김종필 신임 회장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윤성이 총장과 20대 총장에 선임된 윤재웅 차기 총장도 참석해 축사를 통해 7080동창회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한편, 이날 모임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활동력있는 동문들이 참여해 인사를 나누고 모교와 총동창회 발전을 위한 건배사를 이어가며 단합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7080동창회 신임 집행부

△회장=김종필(행정82/내일신문 이사/모교 특임교수)
△부회장=이창근(농경83/다올투자증권 대표), 이은정(경행84/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감사=윤학섭(경영84/삼정회계법인 대표) △사무총장=이호중(행정85/대한LPG협회 회장) △총무국장=이동규(행정88/케이에이치에스 대표), 최승희(법학02/변호사) △조직위원장=한상권(경영89/KBS아나운서) △기획위원장=차연신(연극영화 85/와이에스PMC 대표), 황범순(행정91/행안부 안전감찰담당관) △재무위원장=주정호(회계92/신한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문화예술위원장=송경옥(연영84/매나테크코리아 PD) △체육위원장=이호근(경영84/동국대 농구부 감독) △트레킹위원장=최철호(산공86/성곽길역사문화연구소 소장) △대외협력위원장=안영찬(경영85/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보건위원장=정이안(한의86/정이안한의원 원장) △법규위원장=서동범(법학95/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정은(법학99/변호사) △네트워크 여성위원장=고현미(체교83/세계야동요리협회 지사장) △네트워크 위원장=이순구(경영99/행안부 경찰국 인사지원과), 김민(사회88/태광그룹 상무)

인터뷰

미쳐야 미친다(不狂不及)

7080동창회 신임회장 김종필 동문은 ‘찐 동국인’ 이자 마당발로 통한다. 그는 내일신문 이사/정치팀장, 모교 특임교수이자 강연, 유튜버, 기자 활동을 하는 소통전문가에서 진영을 넘어 혁신을 지향하는 주권자 운동 전도사로 활동한다.



김종필 (행정82)
7080동창회 5대 회장

7080동창회의 정체성은?

20여 년 전 총동창회에 참여하며 아쉬움과 불만을 느꼈던 70 · 80학번 동문 일부가 젊은 동문들의 활동공간을 만들고자 모임을 결성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동문사회의 ‘에너지 발전소 · 콘텐츠 발전소’로서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고 수평적 네트워크 소통을 활성화하며 건전한 비판과 대안세력으로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밑거름 역할을 수행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총동창회에서 70 · 80 동문들의 역할은?

현역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각계분야 7080동문들의 에너지를 융합해야 총동창회와 모교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동문간 소통과 모임 활성화 그리고 총동창회 활동에 능동적 참여의 매개체가 되도록 힘쓰고자 합니다. 노장청의 조화로운 공존과 단합에 기여하겠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활동계획은?

코로나19 단절의 시간을 넘어 이제는 일상 회복의 시대입니다. 동문 간 다양한 소통의 징검다리가 되기 위해 각 분과위원회의 주도로 활동을 확대해 나가려 합니다. 70 · 80년대생 젊은 후배들의 동참과 확장을 통해 두터운 동문소통의 장을 열어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트레킹위원회는 연 2회 역사문화기행, 문화예술위원회는 각종 공연과 전시 등 문화행사 단체 관람, 체육위원회는 모교 체육관에서 가을 운동회 개최, 네트워크위원회는 온 · 오프라인에서 총동창회 모임과 네트워킹 및 각종 기획사업 동참 등을 할 계획입니다.



(주) 열림이텍



전기공사감리 | 전력설비 | 환경관리

대표이사

오 정 은

Mobile. 010 . 9885 . 1674 · E-mail. jayjay010@hanmail.net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산두로109번길 19 (정발산동)
Tel. 031-923-4395 / Fax. 031-908-4395



VR/AR/MR/XR 콘텐츠 제작
S3D 영상 제작, 홍보영상 제작



(주) 인하이브 | 08594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5, 912호(대림테크노타운 20차)

TEL. 02) 6012-9157
FAX. 02) 6012-9158

Homepage. www.inhive.co.kr
E-Mail. ceo@inhive.co.kr

한국불교의 새벽을 여는 도량 ... 「기원학사 역사 탐문기」

한용운 · 서정주 거쳐 간 모교 기숙사 이야기

탐문을 마치며

일찍이 장충동 박문사에서부터 시작한 기숙사로서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기원학사의 세월이 70여년을 헤아릴 정도이면 그 역사와 전통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시간의 깊이 속에는 복잡다단한 근현대사의 그림자와 많은 사건과 사실들이 새겨져 있고, 동국대학교의 성장과 함께 젊은 불교학도들의 청정한 의지와 꿈들이 배어 있다.

그러나 그 시대를 거쳐 온 주인공들의 애환이 깃든 그 수많은 이야기를 우리는 스스로도 다 알지 못한다. 기원학사가 품어왔을 중요한 사실과 기억들을 어느 누구도, 또 어떤 형태로도 정리하고 기록해 두지 않은 채 그냥 흘러보내고 말아도, 과연 우리는 마음이 편할 것인가.

기원학사에 관한 기록 부재의 안타까운 현실에 즈음하여,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 역사와 현장을 탐문해가면서 공동체로서의 전통과 문화를 추스르고 시대별 사생들의 생활상을 재구성해 보겠다고 감히 나선 이유가 이러한 반성의 지점에 있다.

아울러 단순히 과거회고적인 취향의 자기만족에 머물지 않고 현재의 기원학사 실상을 직시하면서 불심정진과 동국사랑의 그 정신만은 잊지 않고 지난날의 전통을 새로운 모습으로 변용시켜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다. 처음부터 이 일이 무리인 줄 알았지만, 그러나 전통이 있으면 근거를 세워 더욱 빛나게 하고, 만일 역사가 희미하면 상상력으로라도 채워 넣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햇빛에 바래면 역사가 되고 달빛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는 사필(史筆)의 멋스런 경구(警句)를 떠올리면서 곧장 도취되어 기원학사의 역사를 깃는 일에 용감하게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먼저, 각 시대의 특성 파악과 그에 해당하는 몇 가지 주제를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역사 전개와 그 동향 등 필요한 부분을 채워 넣는 것으로 작업 방향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그 일이 어디 뜻과 같이 쉬운 일이던가. 그나마 찾을 수 있는 참고 자료도 부실했지만, 그보다 막연하게 추정되거나 떠도는 풍설 같은 사실을 확인할 길이 보이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 지 한참을 헤매기도 했다.

꼭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말해줄 사람을 찾아야 함에도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 때 그 막막함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었다. 정리 작업이 이와 같았던 만큼 상당 부분에서 이해 부족과 오류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이 가운데 스스로 확신하기 어려운 부분으로는 특히 다음 몇 가지를 분명하게 말해두고 싶다.

첫째, 박문사에서 최초 기숙사 설치와, 각심사로의 이전 과정이 명료하지 못하다. 확인이 가능한 자료와 당시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기숙사에 대한 불교총무원과 학교와의 역학 관계, 기숙사의 불교과 학생 전용 여부, 여러 교사(校史)에서의 박문사 기숙사에 대한 언급 누락 이유 등이 그러하다.

둘째, 6·25전쟁 후 학교본부가 피난지에서 돌아와 임시로 머물던 초동의 서본원사와 학교와의 관계도 불분명하다. 이는 불교총무원 또는 학교의 적산사찰에 대한 불하 여부의 문제로서, 그 뒤 기원학사의 유지 방식과도 관련하여 보다 확실한 정황의 이해가 필요하다.

셋째, 1964년에 교사(校舍) 또는 건물의 신축을 위해 서본원사 철거를 진행했다는 기록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총무원과 학교재단에 책임있는 인사의 구술 기록을 통해서도 그 실제적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불명확하다.

넷째, 초동 기원학사의 안암동 이전 당시 학교 측과 토지를 제공한 개운사 측과의 계약 내용, 1998년 안암동에서 고양시 원당으로 기원 학사를 이전시킬 때 학교 측의 기원학사에 대한 인식과 향후 육성 계획은 어떤 것이었던가 하는 점이다.

이상의 문제들은 대체로 학교재단과 대학당국의 학교경영과 관련한 부분이기도 하여 자세히 그 전모를 파악하고 정리 기술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대강의 해석으로 넘긴 부분도 있고, 그런 관점에서 작업한 과정과 방식에 잘못된 이해나 오류가 포함되지 않았을까 염려하는 것이다.

이는 처음부터 이 작업을 ‘탐문의 기록’ 정도로 무겁지 않게 생각하고 나선 판단 착오의 책임이기도 하다.

원인이 무엇이든 이해 부족이나 오류가 있다면 필자의 탐구와 검증 노력의 부족, 그리고 능력의 한계이다.

따라서 이 부분 문제들에 관해서는 확인되는 대로 오류 수정과 보완의 기회를 약속하는 한편, 너그러운 아량으로 질정(正)을 보태주시면 더욱 충실한 증보(增補)의 자료로 삼을 것을 다짐한다. (중략)

비록 부실하나마, 이 작업의 의미는 지난날들의 단순한 기억 복원과 자찬만을 위함에 있지 않다. 선후배 동문법우들이 함께 지혜와 능력을 모아 전통의 새로운 구현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간절한 각성의 이 소박한 파종이 꽃으로 피어나는 그날을 꿈꾸어 본다.

(출처=기원학사 역사 탐문기 중에서)

기원학사 역사 탐문기



모교 불교학과 교수인 이봉춘(불교68) 박사가 2년여의 조사와 집필로 ‘기원학사 역사 탐문기’를 펴냈다. 1906년 설립된 모교 불교학과 기숙사인 기원학사의 역사는 우리나라 대학기숙사에서 최고로 기록된다. 만해 한용운 선사로부터 시작되어 미당 서정주 등으로 이어지는 수많은 유명 불교인들이 기숙사를 거쳐 갔으며, 100여년 동안 4차례가 넘는 이전을 하였다. 한국 대학기숙사 역사기의 효시를 이룬 기원학사 입사 자격이 불교대학생으로 한정된 규정으로 인원은 많지 않았지만 50~70명의 생도들이 지킨 엄격한 규율과 수행과정은 반세기를 넘으면서도 그 전통을 소중히 이어갔다는 점과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선후배들의 질서와 존중은 변하지 않는 등 기원학사의 자랑스러움이 오롯이 담겨있다.

(동쪽나라 / 1만4천원)

대·한·민·국·대·표·침·대
장수침대
JongSoo Dream Of Life Bed



대통령 표창 3회 수상
2017 국가품질경영대회 대통령 단체 표창
2015 제품안전의 날 대통령 표창
2014 우수 전기제품 대통령 표창



Dream Of Life
오늘보다 젊고, 아름답고, 행복한 내일을 만드는 침대



대·한·민·국·대·표·침·대

장수침대
www.jangsoo.com

경산충전소

LPG소형탱크 설치 및 공급 전문업체



공장



아파트



휴게소 / 식당

- ▶사업체 : 산업체, 병원, 찜질방, 식당, 고속도로휴게소 등
- ▶주 택 : 아파트(공동주택), 연립빌라(다가주택), 단독/전원주택단지 등
- ▶사업체 : 군부대, 학교단체급식소, 도예촌, 화훼농가, 축산농가 등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표 심재봉 (중어중문학과 · 1983)

경북 경산시 진량읍 의송길9 (선화리) Mobile : 010-5264-3491 Tel : 053-851-6981

황경환 동문 경주병원 발전기금 5억원



황경환(교대원87) 회장이 11월15일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발전기금 5억원을 쾌척했다.

황 회장은 진양유조선 대표이사, (주)경주아이씨에스 대표이사, 경북신문 명예회장, 초기불전 선임연구원, 사단법인 21세기 불교포럼 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발전기금 5억원은 사바세계에 태어나서 대자연과 살아가면서 내 이웃의 소중한 고마움에 비하면 작은 보시이다. 경주병원이 경북 유일 불교 종립 대학병원으로서 최첨단 장비(PET-CT)를 통한 의료질 향상으로 더 도약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원법사장학회 WISE캠에 3천만원 기부



원법사장학회(이사장 해운스님)는 12월21일 WISE캠퍼스에 장학기금 3천만원을 전달했다.

원법사장학회는 불교인재 양성을 위해 2015년 원법사 주지 해운스님(불교11)과 신도들이 설립한 장학회이며, 2015년부터 불심이 돈독하고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해운스님은 “불교인재 양성을 위한 인재발사에 동참해주신 원법사장학회 신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WISE캠퍼스가 진정한 불국정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문 동문 동국건학장학 1억원 전달



신성약품(주) 김진문 회장(경영학과 64)이 11월23일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스님)에 장학금 1억원을 전달했다. 김진문 회장은 “자랑스러운 모교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 우수한 후배들이 양성되고 있어 항상 긍지를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동국 기업인으로서 학교 발전을 위한 역할을 매진하겠다.”고 기부 소감을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학업성적 외 품성, 지도력, 봉사활동 등을 기준으로 선발해 선정부터 졸업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동국건학장학’의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장승익 동문 동국 문학인 장려 기부 릴레이 15번째 주자



(주)유니메오 장승익(경대원14) 대표가 ‘동국 문학인 장려 장학 릴레이 기부’의 15번째 주자로 참여하면서 장학금 2천만원을 모교에 전달했다.

장승익 동문은 2019년과 2021년에도 동국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총 1,600만원을 기부한 바 있으며, <동국사랑1.1.1> 캠페인에도 참여하여 매달 정기적인 후원도 이어가고 있다. 경영전문대학원 출신인 장승익 대표는 현재 헬스케어 전문 IT기업인 유니메오(UNIMEWO)를 운영하고 있다.

최진식 동문 국가고시 장학금 5천만원 기부



최진식(무역77) (주)SIMPAC 회장은 12월12일 모교 로터스홀에서 열린 ‘최진식 고시장학금 수여식’을 통해 행정고시 1, 2차 및 최종 합격한 11명의 학생들에게 각 3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고시반지원기금도 1,700만원 기부했다.

최진식 회장은 “힘든 수험 생활에 장학금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한다. 올해 합격한 후배들에게는 축하를 보내며, 합격하지 못한 후배들도 용기를 잃지 말고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라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권오춘 동문 초허당 장학증서 수여식



초허당 권오춘(영문59) 모교 교육대학원 석좌교수는 11월29일 22학년도 2학기 장학증서 수여식을 통해 700만원을 전달했다.

초허당 사범대학 장학은 권 교수가 1억원을 기부하여 조성된 장학금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범대학 학부생들에게 2021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권 교수의 기부금 누적액은 약 113억에 달하며, 지난 1학기에는 장학생 16명(단과대학별 1명씩, 미술학부 4명)에 각 1백만원씩 총 1,600만원을 전달한 바 있다.

dongguk
UNIVERSITY



(주)HIMC 대표이사 **이 중 범** (경영대학원 98卒)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한 불교 조계종 108평화보궁 근본도량 **수락산 도안사**

정기법회 및 기도

- 새해 해맞이 특별기도 : 양력 1월 1일~3일
- 신중기도 : 매월 음력 1일~3일
- 약사기도 및 방생 : 매월 음력 8일
- 지장기도 : 매월 음력 15일~18일
- 관음기도 : 매월 음력 24일
- 광명전연 1080독송기도 : 매월 둘째주 금·토·일요일
- 108산사기도회 영상순례 : 매월 넷째주 금·토요일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145길 99 www.doansa.or.kr
전화 : (02)936-5936, 931-5557 팩스 : (02)935-5936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동창회비 등은 동국발전을 위해 소중히 쓰이고 있습니다.

• 동창회비 납부시 성명·입학년도·학과를 꼭 명시해 주십시오. (단위 : 만원)

동창회비 국민은행 006001-04-237869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302-718184
(예금주 : 동국대학교총동창회)

2022년 11월 1일 ~ 2023년 1월 31일까지 접수분

금액·성명 가나다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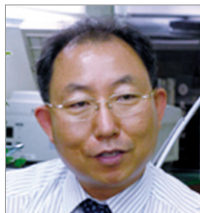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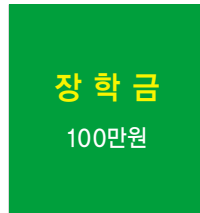
고문

100만원

김성재 (정치58)
아세아자산관리(주) 회장라동명 (불교59)
4.19혁명동지회 회장박준형 (경제57)
신라교역(주) 회장서영준 (법학64)
(주)중앙 회장송석구 (철학58)
前 동국대학교 총장최상철 (경영64)
파인글로벌(주) 대표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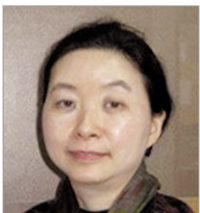
부회장

100만원

김석만 (사대원89)
(주)SH신한 회장김신복 (물리86)
인투이티브서지컬코리아김정남 (행정72)
DB손해보험(주) 부회장김창규 (법학80)
솔루션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김환배 (연료공학68)
오스카빌딩 대표이사박용기 (한의학83)
WISE캠퍼스 대외협력처장박종수 (인도철학72)
삼진식품 회장선일сім (인도철학73)
법명사 회주сім송일석 (미술76)
케이엔티정보기술 대표이사이범주 (식품공학78)
CHEMLAND 대표이사이옥태 (불교80)
(사)한국수소에너지기술연구조합 이사장차승환 (토목공학83)
ROTC총동문회장하 현 (국정원04)
(주)국보 회장김동식 (체육교육70)
강릉불교신도연합회 회장

장학금

100만원

황수경 (대학원00)
모교 불교대학원 겸임교수현웅סים (불교82)
현통사 주지סים의정סים (경남김해)
전법사 주지 (경북봉화)
축서사 주지 (경북봉화)
흥곡사 주지 (경기고양)강경구 (산기원95)
강기진 (경영93)
강희중 (응용생물68)
고광석 (농학84)
고옥자 (영어영문79)
고형중 (국어국문64)
공재현 (무역69)
김교일 (경대원85)
김남수 (상학62)
김도정 (경제97)
김도정 (경제97)
김명호 (불대원98)
김명호 (식품공학61)
김복희 (경제68)
김성동 (경영68)
김진길 (불대원04)
김성수 (무역88)
김성창 (회계86)
김성철 (전자계산86)
김순제 (경제52)
김안규 (경영71)
김양태 (무역85)
김영현 (농학91)
김재원 (경영82)
김정욱 (행정85)
김정인 (행대원80)
김종배 (수학교육82)
김주완 (대학원10)
김 준 (통계65)
김창배 (농학59)
김천수 (경제52)
노문기 (법학87)
노재환 (불대원08)
능인סים (승가74)
명선סים (행대원74)
박성일 (언정원04)
박성조 (회계95)박재필 (경제71)
박정후 (통계02)
박진익 (국어국문88)
박 혁 (물리89)
백봉흙 (법학57)
백용운 (행대원82)
법농סים (불대원91)
서상선 (경영05)
송후중 (행정66)
신용현 (국사교육83)
안병준 (법학02)
안재권 (토목공학78)
오명석 (경대원88)
왕수일 (무역83)
우근식 (경대원98)
원명סים (인도철학67)
유상열 (정치59)
육문균 (경제96)
윤찬희 (화학공학78)
이건선 (임학65)
이규성 (정치외교64)
이근수 (북한98)
이득순 (경영05)
이명상 (법학68)
이승준 (일어일문84)
이열경 (무역70)
이영훈 (경제64)
이운길 (경찰행정76)
이재경 (연극영화85)
이재권 (경제77)
이재혁 (화학공학99)
이점원 (미술72)
이정우 (경대원04)
이종경 (경영82)
이종섭 (불대원19)
이좌범 (사학64)
이지영 (영어영문93)
이철우 (국어국문59)
이춘수 (경영01)
이태영 (회계83)
이학영 (미술82)
이현호 (철학90)이호정 (경영64)
이희경 (경찰행정68)
일선סים (불대원95)
임기중 (국어국문61)
전병욱 (법학04)
전지명 (대학원06)
정광진 (국어국문78)
정상훈 (법학96)
정용근 (행정80)
정주화 (한의학81)
정현중 (농림경제67)
조동현 (농림경제64)
조병로 (대학원81)
조세환 (불대원03)
조중근 (상학61)
주범중 (농학73)
천관영 (정보관리02)
최용해 (불교83)
최인택 (건축공학84)
최재유 (대학원08)
홍상우 (경영03)
홍우성 (건축공학88)
홍종국 (건축공학70)
황문식 (회계83)
황인성 (법학88)
미확인 동문 (7명) 88

발전기금

동명사 월 2 / 누계 : 212
명선סים (행대원74) 월 3
누계 : 27
강희석 (호텔경영97) 50

동국장학회

이진혁 (화학75) 월 5
누계 : 535
이성훈 (정보97) 월 2
누계 : 104

장학위원

박대술 (경제58) 1 연꽃봉사단 100
차승환 (토목공학83) 1 하상우 (경찰행정96) 30

2022 동국인의 밤 행사 협찬금(품) 후원자

◆ 협찬금		※ 단위 : 만원
홍파סים (불교63)	대한불교관음중 중정	1,000
송석환 (농경64)	동진기업(주) 회장	400
82학번동기회	회장 이상민 (농경82)	200
혜담סים (불대원01)	계태사 회주	200
성우סים (승가77)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100
일면סים (승가75)	불암사 회주	50
사회과학대학원	회장 김석만 (사대원89)	50
성낙훈 (행대원82)	고려통일역사선양회 부총재	30
합계 : 2,030		

◆ 협찬상품	
박대신 (국어국문69)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장 TV 42'
이영경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총장 스탠드 TV
김성재 (정치58)	총동창회 고문 LED TV 42'
김진문 (경영64)	총동창회 고문 건강식품 400개
노향선 (화학공학78)	총동창회 부회장 화장품SET 10개
이범주 (식품공학78)	총동창회 부회장 화장품SET 10개
이상명 (경대원83)	총동창회 상임이사 대관령 황태SET 10개
엄한식 (경영89)	베트남 두엔하리조트(3박) 숙박권 4매

◆ 협찬물품	
윤성이 (농경83)	동국대학교 총장 와인 200병
노향선 (화학공학78)	총동창회 부회장 BB크림 700개
이동규 (행정88)	동국대 마크 각인 마스크 800개
임태진 (경사원18)	총동창회 상임부회장 전통주 100병
홍은택 (행대원)	유산균 300개
신한은행동문회	탁상용 캘린더 300개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캘린더 600개

평생회원 50만원

도공סים (승가76)

지도위원 30만원

김영화 (경찰행정63)
김완식 (농학64)
김종욱 (철학59)
서윤길 (불교64)
윤홍섭 (상학65)
장용철 (농학60)
최규철 (정치60)

상임이사 20만원

김석희 (법학57)
대웅סים (불대원99)
박정현 (정치외교82)
박종만 (체육교육98)
법우סים (문예원95)
오재찬 (회계83)
원용근 (경제64)
장석현 (경찰행정79)
정우식 (철학88)

이사 10만원

김경수 (법학05)
김병수 (회계83)
백용운 (수학교육86)
서동부 (사대원92)
어윤소 (경제65)
윤종원 (한의학81)
이권호 (정치외교81)
이용운 (행정80)
임병수 (법대원17)
장승수 (언정대88)
최해수 (사대원05)
한광대 (경영83)
한상태 (행정76)

일반회원 3만원

고란사 주지 (충남부여)
내원암 주지 (남양주) 30
만연사 주지 (전남화순)
방곡사 주지 (충북단양)
법련사 주지 (서울종로)
보림사 주지 (부산기장)
삼화사 주지 (강원동해)
수덕사 주지 (충남예산)
여래사 주지 (경남진주)
오여사 주지 (경북포항)
원각사 주지 (광주동구)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대표 부동산 신탁

언제나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궁화신탁
MUGUNGHWA TRUST CO., LTD.